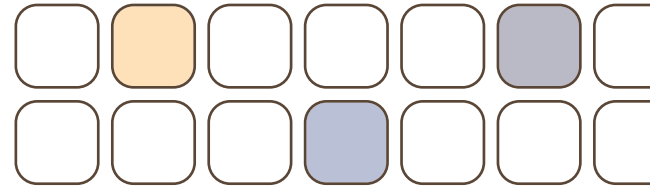


# VD RADAR



## 벤처관련



### 중기청, 현지 전문 민간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활동 촉진을 위해 현지사정에 능통하고 전문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현지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해

외진출 민간거점 활용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현지 진출 전문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해외진출 수요에 따라 1:1로 맞춤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2월 12일까지 접수하며 선정심사를 거쳐 오는 3월에 250여 개 업체를 선정해서 4월부터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 창업 투자금액 10억 원까지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이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투자보조금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제조업 창업촉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의 지원규모는 1,502억 원 규모로 2007년 1월부터 2009년 말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게 투자한 금액의 10%(10억 원 한도)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지원금은 전액 보조금형식으로 지원하며 1월 21일 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서 및 상세한 내용은 창업지원정보시스템(www.changupnet.go.kr)을 참조하면 된다.

### 한국EAP, 전국 8개 주요 산업단지서 '희망나눔센터' 개소

산업단지 근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발생요인을 관리하고 해결을 공동으로 모색할 '희망나눔센터'가 전국 8개 국가산단에서 문을 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EAP협회(회장 채정호)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철두)과 함께 중소기업과 근로가족을 위한 희망나눔센터를 서울디지털 산업단지를 비롯한 전국 8개 주요 국가산단에서 개소하고 100여 명의 분야별 전문 상담가와 콜센터 상담망을 갖춰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인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되는 센터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은 근로자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경력개발, 약물중독 등 개인분야 △가족생활, 자녀양육 등 가족분야 △직무스트레스, 업무성과 등 직장분야 △법률·재무·의료 컨설팅 등 기타분야의 4개 분야에

걸친 유선(콜센터 대표전화 1566-5228), 온라인(hieap.net) 및 1:1 대면 전문상담 등을 통해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인력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근로자 종합지원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문가와의 상담 결과에 따라 맞춤형의 심화된 문제해결 지원서비스 또는 의료지원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서비스가 이뤄진다.

### 산자부, 중소기업 수출지원 위해 32억 지원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기회제공을 위해 올해 43개의 국내 무역전시회를 선정하여 32억 원을 지원한다. 산자부는 해외홍보 및 해외바이어·해외업체 유치활동을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수준의 규모와 지명도를 갖춘 전시회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선정된 8개의 브랜드전시회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외홍보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동북아 TOP 브랜드 전시회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실시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혁신 잠재력은 있으나 특허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

2008년에는 80개 중소기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직접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컨설팅을 받았던 업체 중 컨설팅 내용의 이행수준과 CEO의 실천의지가 높은 업체를 선발, 사후 관리처원의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경영 일반, 직무발명 보상제도, 지재권의 전략적 관리 및 사업화 전략, 특허분쟁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이루어진다.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을 위해 업체를 1차로 방문, 지식재산경영 수준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2차 방문을 통해 맞춤 처방을 제시하는 등 업체의 만족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 동북아 IT R&D · 비즈니스 허브 '누리꿈 스퀘어' 준공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동북아 IT R&D ·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구축한 상암동 DMC(디지털 미디어 시티)내의 '누리꿈 스퀘어'를 준공했다. 정통부는 완공된 누리꿈 스퀘어를 미디어와 IT산업이 융합되는 IT클러스터로 육성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던 정보통신

공공지원 기관을 누리꿈 스캐어로 이전하여 밀착된 공공서비스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학·연 연계 활성화, 기업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정통부가 추진 중인 SW/DC산업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클러스터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지역벤처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 관리시스템 가동

경기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통합 관리시스템인 'G-money(g-money.gg.go.kr)' 를 가동했다. 'G-money' 는 도 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 기술보증기금, 우리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자금처리기관에서 소관 분야별로 처리하던 접수 → 평가 → 지원결정 → 대출·상환의 업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중소기업들은 'G-money'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금의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지원이 결정되면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결과를 전송받아 즉시 지원결정통보서를 출력해 대출신청 등에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금별 신청과 마감 여부 및 접수처 안내 등 자금지원을 위한 유용한 정보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통합 관리시스템인 'G-money(g-money.gg.go.kr)' 를 가동했다. 'G-money' 는 도 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자금에 대해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 기술보증기금, 우리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자금처리기관에서 소관 분야별로 처리하던 접수 → 평가 → 지원결정 → 대출·상환의 업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중소기업들은 'G-money'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금의 처리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금지원이 결정되면 휴대폰 문자나 이메일로 결과를 전송받아 즉시 지원결정통보서를 출력해 대출신청 등에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금별 신청과 마감 여부 및 접수처 안내 등 자금지원을 위한 유용한 정보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다.

### 전주시,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추진

전주시가 덕진구 팔복동 일원의 미개발지에 대하여 소규모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현재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으로 협동화 단지등을 조성중에 있으며 2008년 하반기 착공예정인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1단계에 입주예정업체도 36개 업체에 달하는 등 앞으로도 꾸준한 수도권 기업 등이 이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업지역의 미개발지에 대하여 입주기업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소규모 맞춤형으로 조성하여 용지부족을 해소하고 기업 유치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우리시가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첨단산업 도시로 면모를 일신하여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의 새 모습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조형 R&D 허브로 거듭나

구미국가산업단지가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되었다. 이번 과학연구단지로 지정으로 국내 최대 첨단 IT산업 집적지에서 산·학·연·관이 연계한 최첨단 R&D 허브로 거듭나게 되었다. 특히 국가지정 과학연구단지로 지정받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R&D가 확대되어 투자유치가 활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분원 유치 등 국책 연구기관 유치도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연구단지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디지털사이언스센터』는 부지 12,132㎡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R&DB 자료·정보실, 기술사업화센터, 시제품 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과학 연구단지의 모든 업무를 총괄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과학기술정보 유통 체계구축 및 사업화 추진, 원천기술 및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 애로 기술지원, 중소기업의 S/W 연구개발을 통한 New-IT 산업추진 등 향후 5년간 3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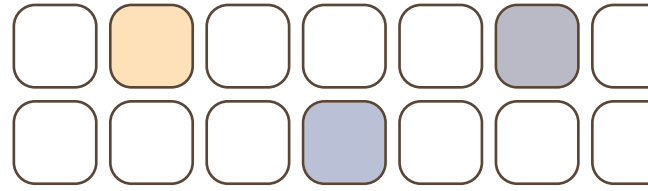
### 광주시, 중소기업에 2천억 자금 지원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환율하락과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획기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해 500억 원의 구조고도화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개선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1,30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신기술·지식집약형 벤처기업에 대해 150억 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창업희망자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 상담과 경영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590억 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 강원 바이오·메디컬펀드 조성 본격 추진

강원도가 의리기, 바이오 등 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150억 원 규모의 전문펀드를 조성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을 육성한다. 이번에 조성하는 「강원 바이오 메디컬펀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운영계획이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한다. 조합원 모집은 강원도·3개시(춘천, 원주, 강릉) 30억 원, 한국모태펀드(중기청) 60억 원, 업무집행조합원(창투사) 15억 원, 기타 일반투자자(금융기관 등) 45억 원을 모집하여 운영한다. 오는 2월까지 업무집행조합원 선

# VD RADAR



정 후 3월경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운용계획을 제출하여 사업계획을 확정 후, 7월경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 충남도, 수출기업 지원 대폭 확대

충남도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도의 2008년도 수출지원 사업계획에 따르면 수출보험료 지원한도를 업체당 4백만 원까지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마케팅 참가업체에 대해 왕복항공료 50%를 지원한다. 또한 연간 수출 1백만 달러 미만 수출업체들의 외국어 통·번역 지원과 통관, 운송, 재고관리를 도와준다. 이와 함께 해외 로드쇼 개최와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토탈마케팅을 지원하고 10회에 걸쳐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하여 총 70개 업체를 세계 각지에 파견한다. 유명 전시박람회에도 11회에 걸쳐 90개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는 등 작년 대비 45% 증액한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40개 수출관련 사업을 추진, 도내 900여 업체를 지원키로 했다.

## 전남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전라남도 소상공인지원센터는 2008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은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을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자에게 지원된다. 금리는 연 5.5%(변동금리) 대출이율이며 대출기간은 5년(거치기간 1년 포함)으로 최고 5,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지역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88-530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bdc.or.kr)를 통하여 상담하면 된다.



### 연구원

## 한국발명진흥회, 국제발명품전시회 접수

한국발명진흥회는 「2008 모스크바국제발명·투자전시회(이하 모스크바국제발명전)」와 「2008 제네바 국제발명·신기술 및 신제품전시회(이하 제네바 국제 발명전)」 출품자를 각각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내국인이 개발한 발명품·신기술로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등록됐거나 출원 중인 발명품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참가 방법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각각 발명진흥·사업화팀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은 모스크바국제발명전은 2월 1일까지, 제네바국제발명전은 2월 12일까지이다.

올해로 36회째를 맞은 제네바국제발명전은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전시회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금상 5건을 비롯해 총 13건의 수상작을 내는 등 국내 발명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4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발명품을 개최된다.

모스크바국제발명전은 2001년에 처음 개최된 이래 올해로 8회째로 오는 3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하고 심사를 거쳐 우수 발명품을 선정·시상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를 참조하면 된다.

## POSTECH, LED 대체할 '차세대 광원' 원천기술 개발

포스텍 전자전기공학과 연구팀이 기존 LED의 성능보다 우수한 청색의 '부드러운 3차원 수직공진형 광양자태 레이저'를 최초로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기존의 LED가 갖고 있는 단점을 대폭 보완할 것으로 기대돼 더욱 눈길을 끈다. 기존 LED의 응답속도가 메가헤르츠(MHz)를 넘기기 어렵는데 비해 레이저는 수백 메가헤르츠에서 기가헤르츠(GHz)급까지 빠른 응답속도를 보이고, 이 같은 응답속도는 고주파로 변조할 수 있어 조명기구에는 물론, 휴대폰이나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KAIST, 세계 산업 바이오기술 분야 연구 선도

KAIST(총장 서남표)의 바이오융합연구소가 시스템 생물학 사업과 계놈정보 활용 통합 생물공정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세계 산업 바이오기술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산업 바이오기술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덴마크 존 빌라슨(John Villadsen) 교수는 최근 화학공학과학誌에 발표한 논문에서 KAIST 이상엽 교수를 동아시아 바이오텍 분야 선도자로 높이 평가했다. KAIST 바이오융합연구소 공동 소장인 이상엽(생명화학공학과) 교수는 융합 연구를 통한 시스템 대사공학으로 ▲세계 최고 효율의 속산산 생산 기술 개발 ▲필수 아미노산인 발린과 쓰레오닌의 고효율 맞춤형 균주 개발 ▲바이오에탄올보다 성능이 우수한 바이오부탄올 생산 균주 개발 등 바이오리파이너리 및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연구 성과를 올렸다.

## 전경련, 「중소기업 지원제도 요람」 발간

전경련 경영자문단은 중소기업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유익한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CEO가 알아야 할 중소기업 지원제도 요람」을 발간했다. 요람은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각각의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활용법 등을 엮은 것으로 정책자금 지원, 기술지원, 인력지원, 판로지원, 수출지원, 정보화 지원, 창업지원, 벤처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세제지원 등 167가지의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각각의 지원 사업들은 지원내용 및 대상과 분야, 지원절차, 자격요건 및 문의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중소기업 CEO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고 제도의 소개뿐 아니라 성격과 특징, 그리고 활용방법까지 제시했다. 본 책자는 센터 홈페이지(www.fkisc.or.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 산업은행, 「IT산업 트렌드 2008」 발간

산업은행이 「IT산업 트렌드 2008」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책자는 1, 2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2008년 IT산업 전망을 다뤘고, 제2부에서는 2007년 IT산업의 주요이슈를 분석했다. 특히 책자에는 디지털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지식서비스산업과 지능형로봇산업, 태양광발전산업 등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했다. 책자는 '08년 IT산업 주요 이슈로 컨버전스화 확산, 친환경 그린(Green) IT 부각, 신흥국의 영향력 확대, 스마트폰의 범용화, 웹기반 SW서비스 및 사스(SaaS ; Software as a Service) 확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확산 등을 전망했다.

### 해외벤처

## 실리콘밸리, 마지막 반도체 공장 문닫아

반도체 산업의 산파 역할로 자리매김한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생산이 멈추고 기술개발만 남게 됐다. 실리콘밸리닷컴은 40년 역사의

인텔마저 실리콘밸리 내에서 가동 중인 마지막 반도체 공장을 올 하반기에 폐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인텔은 최근 전 세계 8만6000명의 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샌타클래라 본사 부근의 반도체 공장 'D2'가 하반기에 가동을 멈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D2는 10만평방피트 규모를 자랑하는 실리콘밸리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반도체 공장(메인 팹)으로 1988년에 세워졌다.

## 中 벤처광풍에 버블 조짐

중국에서 IT(정보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벤처 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버블붕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중국에서 동영상사이트 회사를 운영하는 게리 왕은 매달 1천50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을 끌어 들이며 기업공개(IPO)의 꿈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상장 대박'의 기대에 들떠 있는 왕에게도 고민이 있다. 뾰족한 수익창출 방안이 없다는 것. WP는 왕의 사례가 전형적인 중국의 '닷컴 붐'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10년 간 중국에서는 정부의 민간투자 유치 확대 노력으로 신규 창업 기업의 수가 늘어났고 이들 기업 대다수는 인터넷 비즈니스와 반도체, 생명기술 개발 등에 뛰어들었다. 실제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베이징(北京) 중관촌(中關村) 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2만개 신규창업 기업은 지난해 세계 벤처투자의 절반 이상을 흡수했다.

## 美 대형투자자, 브라질에 벤처 캐피탈 조성

미국 내 13개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이루어진 대표단이 브라질을 방문, 벤처 캐피탈을 포함해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현지 경제 일간 가제타 메르칸틸(Gazeta Mercantil)이 보도했다.

이번에 브라질을 방문한 대표단은 미국 상무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대표단 가운데는 미국 최대의 공공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일명 캘퍼스)과 텍사스 및 워싱턴 소재 유명 대학이 운영하는 펀드도 포함돼 있다. 특히 2천400억달러를 운용하고 있는 캘퍼스는 최근 공격형 펀드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리기로 한 방침에 따라 브라질 내 유망 업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2008 전 세계 혁신기업 발표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최근 2008 혁신기업 연차 보고서에서 39개에 달하는 각국의 혁신기업을 발표했다. 전 세계의 정보통신,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기업 선정에서 미국은 가장 많은 24개 기업을 배출했다. 이는 전체의 60%에 달하는 수치다.

영국과 이스라엘이 각각 3개로 두 번째로 많은 수상 기업을 배출했으며, 이어 스위스·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의 순이었다. 미국 기업은 전 분야를 통틀어 고르게 우위를 보였다. 에너지 분야는 10개 가운데 무려 8개가 미국 국적이었다.